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6월13일 강의 계획서

주요 가르침(1)–아빠 하나님과 주님의 기도

B. 주님의 기도에 대한 본론적 설명

2. 주님의 기도 전반부

(3)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4) “아빠의 나라가 오시며”

○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구원 행위를 가리킨다

○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5) “아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소서”

○ 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땅은 나의 삶의 자리다

3. 주님의 기도 후반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양식”의 두 종류: 생존을 위한 양식 + 영혼의 양식

○ “오늘, 일용할 양식”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2)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전제해서 주어지는가?

-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가 어떻게 가능한가?
- (3)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 나오는 세 청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유혹인가, 시험인가?
 - 이 청원기도를 드릴 때 유의해야 할 점
- (4) “악에서 구하소서”

4. 아멘!

5. “왜냐하면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2) - 산상설교

1. 산상설교란 용어

De Sermone Domini in monte(「산에서 주어진 주님의 설교」)

예수님께서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마태 5,1)

2.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산상설교: 마태오복음 5-7장

평지설교: 루카 6,17-49

3. 산상설교의 구조

서론:

행복선언(마태 5,3-12)

본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마태 5,13-16)

그리스도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마태 5,17-18)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마태 5,19-20)

여섯 개의 대립명제(마태 5,21-48)

그리스도인이 이뤄야 할 종교적 의로움(마태 6,1-18)

재물과 걱정의 쌍둥이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마태 6,19-34)

그리스도인이 관계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마태 7,1-12)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선택(마태 7,13-27)

4. 산상설교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5. 산상설교 = 초대교회 교리서(디다케)

6. 산상설교의 성격

(1) 지난 날 산상설교에 대한 견해들

(1) 문자주의적 견해- 오리게네스, 톨스토이

(2) 두 대상을 향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 보나벤투라

(3) 은총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견해 - 마틴 루터

(4) 종말시기에 지켜야 될 비상법으로 보는 견해 - 슈바이처

(5) 천년왕국이 오면 그 왕국에서 지켜할 법으로 보는 견해 - 시한부종말론

(2) 산상설교는 법이 아니라 복음적 초대다

(1) 산상설교가 법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

(2) 산상설교가 법이라면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7. 산상설교는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행동양식을 담고 있다

8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인품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

9. 산상설교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100% 살아갈 사람은 없다. 시간이 걸린다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3) - 기도에 대한 가르침

1. 개인기도를 강조하심

2. 청원기도의 올바른 태도들에 대해서 가르치심

① 끈질기게 기도하는 태도를 강조하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

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결국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루카 18,1-8)

②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심; 바리사이의 태도를 금하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보다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루카 18,10-14)

③ 빈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금하심

- 신을 기쁘게 하고자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임
-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름
- 동일한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

3. 예수님이 청원기도만을 가르쳐주신 이유

금 학기 내내 수고가 컸습니다.
이번 학기 졸업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다음 학기(2023년 가을) 다시 만나게 될 분들에게도
축원드립니다. 금 학기 수고가 컸습니다.
여름 방학 내내 사랑, 기쁨, 평화가 가득 찬 삶을 주님 현존 안에서
누리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